

오피니언

다산포럼

조상호



조금은 불편하게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일 때도 있다. 이상기후라고 호들갑을 떠는 자연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요즘이 더욱 그러하다. 자연은 지구탄생부터 자연 그대로 일 뿐 사람들이 이에 적응하고 활용하며 살아왔다. 요즘 겪고 있는 기후변화는 너무 편하게 살고자 뿔어대는 이산화탄소의 과도한 배출로 극지의 빙하가 녹고 오존층이 뚫리면서 예견된 당연한 결과이다. 조금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지를 실천하는 길밖에는 딱히 가뭄과 폭우가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뾰족한 수도 없는 것 같다. 다양한 사회를 꿈꾸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하듯이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하여야 할 것 같다.

요즘 지구환경에 관한 TV 다큐멘터리가 소리없는 아우성처럼 인기를 끌고 있다. 며칠 전의 프로그램에서 수천만리를 이동하는 철새떼들이 도시의 상공을 이용하여 비행하는 것은 인간탐욕이 만들어 내는 상승기류를 활용하여 편하게 날기 위한 것임을 알았다. 생존을 위해 대륙을 넘나들던 그들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기류가 찾아올 때까지 인내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한다. 인간중심의 자연환경보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주변을 둘러 볼 수 있는 암시를 받는지도 모른다.

강은 산을 넘지 못한다. 낮은 곳을 찾아

산을 에둘러 가며 결국 바다에 이른다. 뒷물결이 앞 물결을 추월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전혀 서두르지 않고 낮은 곳은 다 채우고 나서야 앞으로 나아간다. 해서 우리네 삶의 진선미를 상선약수(上善若水)라고 하는지도 모른다.

중부지방에 단비가 내렸다. 남쪽에서 장마구름이 북상하면서 천둥과 번개도 함께하는 장대비였다. 석 달째 계속되던 가뭄으로 논이 갈라져 모내기도 할 수 없었고 산촌에는 식수를 배급해야 했으며, 철쭉, 화양무 등 도화지의 조경용 천근산 관목들도 타 죽었다. 이른봄 처음에는 이례

적인 봄가뭄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104년 만의 가뭄이라고 숫자나 희롱한다. 바다 난 저수지나 타들어가는 밭작물의 사진이 나 보도하면서 농민의 애타는 심정을 읽는 의무를 다했다는 투다. 농사를 망친 그들의 한 해 삶에 대한 대책은 관심도 없다. 전체인구의 7퍼센트에도 못 미친다는 소수로 전락했다고 그러는 걸까. 어느 관리의 생각인지 호들갑을 떨며 물주머니를 매달고 있는 도시의 가로수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 그러나 표를 의식한다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작 농심(農心)의 유권자들을 간과하고 있다. 도회지의 편안

며 가족들을 덮쳤고, 곤지암천이 범람하여 논밭이 떠나려갔다. 내가 애써 가꾸던 포천 신복의 나뭇수목원에도 산사태를 당했다. 18만평의 산림의 한 골짜기에서 일어난 자연재해이기는 했지만 가슴이 무너지는 힘든 상처였다. 신령스럽기까지 했던 100년 넘은 산행나무가 토사에 묻혔다. 거목이 된 잣나무 숲에도 나무가 뿌리 채 뽑히고 용암 같은 토사가 깊게 활취고 간 자리에에는 짐승의 이빨자국처럼 바위가 드러났다. 임도가 끊기고 개울은 두세 배나 넓어졌다. 넓은 호수는 토사에 묻혀 그 자리만 얼추 짐작할 뿐이었다. 지난가를 초겨울은 석축을 쌓고 조그만 산봉우리 하나를 털어내 그 흙을 메워가면서 나무를 다시 심고 복구작업에 온 정성을 다한 정엄한 시간들이었다.

자연이 다시 금을 그어준 자연 그대로의 물길을 존중해야 했다. 인간의 눈높이로 자연을 재단할 수 있다는 오만부터 버려야 했다.

이제는 100년만의 폭우가 일상화될지도 모른다. 이른바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간이 만든 문명의 잣대는 자연 앞에 얼마나 왜소한 것인가. 인간이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도 천재지변이거나나 자연의 재앙이라는 허위의식 뒤에 언제까지 웅크리고 숨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주니나출판 대표이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폭우를 잉태한 가뭄

함을 추구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허둥대면서 자연의 삶을 그리는 수많은 도시농부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중적인 욕망까지 부끄럽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 잠시 후면 조금 불편하게 살더라도 녹색의 원형질을 실천하고자 자연에 발 벗고 나설 그들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작년 이맘때는 100년 만의 폭우였다고 야단이 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결과라고는 하지만 5월부터 3개월 동안 계속 비가 내렸고 7월 말에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가장 원시적인 자연재해라 했지만 서울의 우면산에 산사태가 나 40여 명이 죽고 다쳤으

시설

제동걸린 해저터널 대선공약 포함시켜야

남해안 관광시대 핵심사업인 전남~제주 해저터널의 국제사업 선정을 위해 서는 반드시 대선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대비 편익 비율(B/C)이 0.71~0.78로 경제적 타당성 기준치인 1에 못미치는데다 전남도가 국토부에 요청한 기본계획 수립비 100억 원도 내년도 예산에 누락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호남~제주간 해저터널 타당성 용역 결과', 최적 노선은 목포~해남~보길도~추자도~화도~제주 구간으로 14년간 20조813억 원이 소요되며 연간 120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C를 경제적 타당성 기준치 미만으로 제시했다. 또 연장 89km로 세계 최장이 될 해저터널 건설 국내 기술력 미확보와 안전성 등 과제도 적시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단순한 경제성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을 토대로 관광, 문화, 기술력 축적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호남선 복선화 사업과 서해안고속도로 등도 B/C가 낮게 나왔지만 완공후, 국가교통망의 중추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결과는 수요예측을 잘못한 측면도 있다. 지난 2008년 교통개발연구원의 전남~제주 해저터널 용역에 2036년 관광 수요가 2000만 명에 달하고 이중 73%가 해저터널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런데 이번엔 해저터널 교통분담을 20% 줄여 적용, B/C가 크게 떨어졌고 최근 늘고있는 제주 관광 수요도 고려하지 않았다. 전남도가 용역 결과 공개와 함께 국내의 전문가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해저터널이아말로 전남의 빼어난 섬 자원과 제주의 관광자원을 연계해 전남을 국내 대표 관광지로 육성할 절호의 기회다.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은 여야 대선공약에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 대형사업장 노사 상생으로 위기 넘자

광주지역 대형사업장의 파업이 현실화하면서 광주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광주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아차 광주공장과 금호타이어 노조가 파업을 준비하거나 파업 돌입을 위한 찬반투표에 나섰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는 10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하고, 기아차는 10일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가결될 경우 13일과 20일 부분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기아차의 경우 임금·복지 보다는 삼급단체금 지급 노조가 주도하는 '정치 파업'의 동참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50만대 증산 프로젝트와 매출 8조5000억 원 달성 등 지속적 성장으로 지역경제 효자 노릇을 해왔다. 지난 2010년과 지난해에는 19년 연속 파업의 고리를 끊고 무분규로 일관함을 마쳤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그동안의 노사상생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공간이 크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조정을 앞두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파업 결정에 대해 우려가 크다. 금호타이어는 노사갈등으로 2년전에 법정관리 위기에 몰렸고, 지난해 3월에는 워크아웃 중단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지역사회도 대기업 노조의 파업을 보는 눈이 곱지않다. 대기업 노조의 파업은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연 62만대 생산체제 구축은 물론 건너 가게 되고, 현재 10만대에 달하는 고객 대기물량도 해소는커녕 더 늘어날 게 뻔하다. 금호타이어도 파업 단행시 내년 워크아웃 졸업 차질은 물론 채권단의 극약처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회사와 밀착된 지역사회 모두에게 불행으로 다가올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 노조가 현실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공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네팔에서 온 편지 ⑬



박행순

인도에서 태어나고 네팔에서 자란 여성작가 프라티바 마나넨이 쓴 'A friend in a thousand(천 명 중의 한 친구)'라는 소설을 읽었다. 1990년대의 왕정에서 공화국으로의 전환기를 맞은 시골 소녀의 삶, 그리고 꿈을 이루는 과정을 그렸다. 가난한 농부의 셋째 딸로 태어난 주인공이 유년기에 자기 이름이 없다는 자각으로부터 소설이 시작된다. 아버지는 일찌감치 아들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막상 딸들이 줄줄이 태어나자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다. 주인공은 그냥 '간치(막내)'라고 불렸고 간치는 이름 없는 수많은 시골 소녀들을 대표한다.

마누쉬-여성 그리고 인간

엄마는 간치가 어때서 이름을 갖겠다고 귀찮게 하느냐고 하고, 간치는 아버지 앞에서 주눅이 들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 다행히 간치를 이해하는 외할머니가 있었다. 공주님이 말을 타고 와서 특별히 간치를 위해서 '마누쉬'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갔다는 외할머니의 말을 어린 간치는 철썩같이 믿었다. 마누쉬는 산스크리트어로 '인간, 또는 여성'이라는 뜻이다.

어느 날 마누쉬는 낮은 카스트의 '따라'라는 여자에게 만나고 남몰래 우정을 키워간다. 따라는 계급 철폐를 주장하는 혁명가의 딸이고 야학에서 글을 배워 바나나 잎사귀에 시를 쓴다. 따라의 시는 마누쉬의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 무언의 소리, '몸속에 갇혀있는 슬픈소리'를 대변하고, 마누쉬는 따라를 통하여 꿈을 갖게 된다.

따라가 학교 글짓기 시간에 '마을에 대한 나의 꿈'을 썼다는 이유로 주민들에 의해 공개재판을 받고 결국 그들은 카트만두로 야반도주를 하는 처지가 되어 들은 헤어졌다.

얼마 후 따라는 반정부 포스터를 붙이다가 정부군의 총에 맞아서 꿈 많은 어린 혁명투사는 열여섯 해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작가는 여자에게 이름 없이, 그리고 자기주장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주눅이 들어 살아야 하는 사회, 낮은 신분의 여자에게 꿈을 갖는 것이 죄가 되었던 시대를 잔잔히 그려냈다. 담고도 억눌렀던 어린 소녀들의 목소리와 꿈은 마누쉬와 따라로 대표되는 네팔, 특히 시골 소녀들의 삶의 이야기로 풀려나온다. '한 친구', 따라는 그 뒤에 가려져 있는 수천 명을 대신하는데 그 친구는 삶 밖으로 사라져 버렸다.

한편, 마누쉬는 어느 날 언니와 함께 여성들의 모임에 갔다가 처음으로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꿈이 있다'고, 마침내 입을 여는 과정을 작가는 감동으로 그려낸다. 한번 입을 여는 마누쉬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야학에 가고 교육을 통하여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갔으며 후에는 소설가가 되었다. 마누쉬는 교육을 통

여 자기 꿈과 따라의 꿈을 함께 살려내서 네팔 여성의 미래에 희망을 주었다.

불행하게도 여성에 대한 차별은 소설에나 있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성차별에 의한 폭력 등을 연구하는 한 전문가가 '네팔의 여성에 대한 처우는 아직도 중세'라는 칼럼제목으로 여성폭력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주술사가 불임으로 고민하던 부부에게 '마녀' 때문이라고 지목하는 바람에 실제로 그 여성이 눈알을 뽑히는 일이 카트만두에서 일어났다고 개탄했다. 시골에서는 차마 글로 옮기고 싶지 않은 더 처참한 일들이 여성에게 행해지고 있다고 했다.

마나넨은 이 소설을 통하여 네팔의 '간치'들이 '마누쉬'가 되도록 교육기회를 줄 것을 호소한다. 얼마 전 작가를 만나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책 판매 수입금으로 '마누쉬 기금'을 만들어 몇 명의 오지 여성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 숫자가 확대되기를 원했다. 간치, 마누쉬, 그리고 작가인 마나넨의 꿈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책 20권을 사서 지인들에게 나눠주면서 후원을 부탁했다.

〈피터의대 객원 교수·전남대 명예교수〉

기고



안기석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작된 민선 5기가 2년을 지나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모든 시정의 가치기준을 '시민의 행복'에 두고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강운태 시장을 중심으로 6000여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 특히 시는 광주공동체 방향을 △민주·인권·평화도시 △문화콘텐츠 허브도시 △첨단과학산업도시 △친환경전도도시로 정하고 '하빈 된다'는 자신감 속에 열심히 땀을 흘렸다. 그 결과 각 부문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민주·인권·평화도시와 관련해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일이다. 이를 통해 광주정신이 세계가 인정하는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만들기 2년

민주역사로 기록되는 영예를 얻었다.

인권의 가치가 시민 삶 속에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광주인권헌장'과 '인권지표'를 제정해 선포한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인권지표' 개발은 국가가 아닌 지방도시가 세계 최초로 시도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시는 또 '세계인권도시포럼'을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며 인권증진과 인권도시간의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국제적인 인권 중심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회의'를 유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은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던 전남도청 별관 문제를 해결하고 2014년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전국 최초로 '문화전당권역' 등 4개소를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고 글로벌 수준의 문화콘텐츠 제작 및 인력양성기관인 'CGI(컴퓨터형성이미지)센터'를 개관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획기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해외 15개국을 방문하는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240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맺고 1만5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10만개 일자리' 목표치의 56%인 5만6000개의 신규 일터를 만들어냄으로써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되고 있다.

개발형 연구·산업과 국제협력단지로 육성될 '광주 R&D특구' 지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GIST 캠퍼스를 유치, '첨단과학산업도시'로서의 확고한 성장기반을 구축한 점도 괄목할만한 성과다. 또 광·자동차·가전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2011년에 사상 최대인 134억 수출을 달성하며 명실상부한 '수출선도형 생산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시는 국내 도시환경 회의 중 가장 큰 규모인 'UEA광주정상회의'와 '지구환경전망(GEO-5) 세계정부간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도시환경협약 회원도시연합(UEAMA) 사무국을 광주에 설치함으로써 세계가 주목하는 '환경선도도

시'로 인정받고 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탄소은행제'를 적극 추진해 전체 가구수의 43%가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UN에 등록된 'LED 도로 조명 프로그램 CDM사업', UNEP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도시CDM'과 '도시환경평가 지표' 개발을 통해 저탄소 녹색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모든 일은 방향과 속도가 중요하다. 강운태 시장은 '방향'을 잘 정하고 경쟁상대보다 반발 짝만 빠르게 움직이면 승리할 수 있다'고 역설해왔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기초가 다져졌고, 성과가 나타났다. 이제 막 기둥이 올라가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선 5기 2년간 많은 성과를 거둔 데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광주시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지 않았다면 이처럼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이루지는 못했을 것이다.

시는 지금까지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광주공동체가 분개도를 순환하는 민선5기 후반기 활약을 열어나갈 예정이다. 시민에게 행복을 주고 광주의 미래를 바꿀 정책들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광주시민께서도 민선 5기가 순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한다. 〈광주시 대변인〉

無等鼓

최근 한 모임에서 교육청 생활지도 책임자 등 서넛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야기 도중 "덩치 큰 중고생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모두 순식당 담배를 내놓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한 둘은 "여럿이 보는 곳에서 담배를 피운다면 필경 문제가 있는 애들일 텐데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외면이 상책"이라는 의견을 표시했다. 한 사람은 "우선 어느 학교 학생인지를 물어보고, 적극 반성을 유도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선택했다. 그러나 정답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오비리(烏飛梨落)이었을까? 모임이었던 바로 그날 비슷한 시각에 서정성 광주시의원의 '휴게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 광주 한 중학생 5명이 학생 1명에게 주먹과 발길질을 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서 의원이 이를 광역 측에 알리려는 과정에서 순재감을 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서 의원이 생각하는 상황과 교육청측으로 판단해 주지 않아 나섰던 서 의원의 행동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일단 "어른으로서 응당한 태도였다"는 반응이다. 좀 더 냉철하게 대응해 순재감 없이 학교 측에 인계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있었다.

학생들이 5명이나 됐고 요즘 아이들 체격이 커져 서 의원 혼자 처리하기에는 심리적 압박감이 컸겠지만 몸에 손을 댄 것은 못내 아쉽다. 그만큼 학교폭력이나 탈선 중고생의 흡연 등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번 서 의원 사건은 '어른'의 역할을 되새기게 한다. 20~30년 전에는 담배를 피우던 불량소년이라 해도 해도 엉장자 눈에 띄면 몸을 숨기거나 줄행랑을 놓곤 했다. 요즘은 잘못 휴게했다가 불변을 당하는 일도 있지만, 학교폭력과 비행 청소년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은 재역할을 포기한 어른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휴게



카메라 회피 불법 장치 부착 차량 철저히 단속해야

자동차의 과속은 과도한 기름 낭비로 인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너무나 기본적인 피해부터 시작해, 도로에서 사고위험을 높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낸다. 이런 사고위험은 자신만의 피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뺏어간다는데 문제가 있다.

자동차 과속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각 지방 국도에도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과속을 막고 있는 있지만 이를 무력화

시키는 사람들도 많다. 참 야비하고 놀라운 사람들이다.

주로 트럭들의 번호판 주변에 음악CD를 붙여서 과속 카메라가 촬영하는 순간 반짝하는 빛을 발산시켜 촬영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수법이 고전적 방법이었다. 또 번호판 사 때 도와 있다. 일반 번호판은 과속하면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만, 반사 번호판은 카메라가 쏘는 불빛을 반사시켜 번호를 알 수

없게 만든다.

그런데 이게 점점 지능화되더니 과속감지 카메라가 나타나면 운전석에서 스위치를 조작해 번호판을 기울이는 기술까지 등장했고, 이제는 아예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 번호판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팔아온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뉴스가 들린다.

이렇게 감지카메라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무인 단속 카메라 회피 목적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요즘 도로위에 보면 교통정보수집장치가

는 카메라를 자주 보는데 이것이 각종 범죄를 저지른 후 달아나는 차량을 촬영하는 CCTV형 카메라다. 이로 인해 범인을 검거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들었다.

하지만 과속감지 카메라 회피하는 목적 외에 이런 범죄예방용 촬영카메라까지 무용지물로 만드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불법 카메라 회피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이렇게 촬영이 안 되는 차는 대포차나 다름없으며 뺑소니 등 여러 가지 범죄에 이용되기 때문이다.

▲운동기·광주시 광산구 사후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3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